

7월 임시국회 10일께 소집...11개월 만에 '숨 고르기'

여야, 열흘간 '휴지기' 협의 중 '방탄 공방' 수위 한풀 꺾였지만 일 오염수·노란봉투법 등 '전운'

여야 원내 지도부의 협의에 따라 7월 임시국회는 첫 주를 건너뛰고 오는 10일께 소집되고,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잠시 휴지기를 갖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6일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래 지난 30일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 회기는 이어졌다.

회기에 속하지 않은 날은 3월 31일과 5월 31일, 이틀뿐으로 사실상 11개월째 국회가 '풀가동' 된 것이다.

여야 간 정국 주도권 다툼에 국회 회기가 7~8월을 제외하곤 늘 이어지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올해는 국회의원 '방탄 논란'과 맞물려 유독 주목을 받았다.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행사를 위해 다수 의석 지위를 활용해 임시회 일정을 빠꼭히 채워왔다고 주장한다.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헌법 규정을 '악용'했다는 논리다.

실제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돈봉투' 의혹에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회기 기간 체포동의의 부결 덕에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앞선 경우와 달리 7월 임시회 소집에 시간적 여유를 둔 것을 놓고 '방탄 정당' 논란을 피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히기도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7·8월에는 비회기 기간이 꽤 된다.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하고 싶다면 그때 영장을 청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시회 공백 기간 검찰이 이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방탄 논란이 깔끔하게 해소될지도 미지수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총 112명 의원 중 110명이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상태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검찰이 야당 탄압 수사로 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는데 불체포권을 내려놓는 것은 무장해제하는 것과 다를없다"며 "당 핵심위도 제안했지만, 반대의견이 꽤 많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회기에 잠시 공백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진성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그때 회기를 조정, 영장실질심사에 해당 의원이 출석하도록 하는 안을 민주당이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 간 '방탄 공방' 수위는 한풀 꺾였지만, 내주부터 시작할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벌써 전운이 감돈다.

당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해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오염수 청문회' 개최 거부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오염수 청문회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여당이 추진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야 4당이 같은날 본회의 부의를 강행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여권에서 거론된다.

무엇보다 야당이 "극단적 남북 적대론자"라며 이미 부적격 인사로 규정된 김연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정국이 급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승례문 일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방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맞팔을 들고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日 오염수' IAEA 보고서 공개 임박 與, 의원들에 "비상 상황 대비하라"

3일 의총선 '광우병 시위' 주도 인사 강연 듣고 대응 논리 공유 전날 열린 '민주 오염수 규탄대회'엔 "분노·증오의 선전 선동"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평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공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한 모양새다.

보고서 공개를 전후로 야당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취지다.

2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재욱 원내대표는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해 촉구 결의안'을 강행 처리한 지난 30일 원내 공지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야당의 괴담 선동이 난무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때"라며 "다음 주는 의원님들 모두 국회 비상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4일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가

전달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은 IAEA가 4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달 27일 보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3일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듣는다. 강연자는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 대표다.

과거 광우병 사태 시위를 주도한 단체에 몸담았던 민 대표로부터 야당의 '괴담'에 맞설 대응 논리를 공유하는 차원이다.

한편, 이날 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어제도 길바닥에 앉아 선전 선동, 괴담 정치에 열을 올렸"며 "분노와 증오의 선전·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집회는 '규탄대회'라 쓰고 '단합대회'라고 읽는다"며 "규탄대회라는 이름을 빌려 궁지에 몰린 이재명 대표와 그를 위시한 문제 인사들이 사법 리스크 물 흐르기, 정부를 성토했기 위한 집회에 나선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 되면 민주당은 분노와 증오야말로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십분 이용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존재"라고 맹비난했다.

전주에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지난달 30일 본회의 도중 지인과 일본 북해도 여행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점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오염수 방류 계획 철해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밀어붙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게 국민은 그저 선거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한 모양"이라며 "결국으로는 국민들을 위한 것은 적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교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아닌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

윤 대통령, 차관 내정자들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 차관 내정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당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2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했다.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정신 수호에 헌신적인 자세를 잃지 말아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주문은 윤 대통령 본인의 과거 발언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3년 10월 12일 서울 고검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랑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혀 강골 검사 이미지를 각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차관 내정자들에게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인사 결정을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피'를 발탁함으로써 전체 공직 사회가 일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앞서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지난달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이번 차관 교체 이후 고위공무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내부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심의제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원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